

도입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Great is Thy Faithfulness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1.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2.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3. Jesus loves me, loves me still, Though I'm very weak and ill:  
From His shining throne on high Comes to watch me whence I lie.
  4. Jesus loves me, He will stay Close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 (Chor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Amen.

본문 에스더 4:14-16

-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농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 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Esther 4:14-16

14 For if you keep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will rise for the Jews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house will perish. And who knows whether you have not come to the kingdom for such a time as this?" 15 Then Esther told them to reply to Mordecai, 16 "Go, gather all the Jews to be found in Susa, and hold a fast on my behalf, and do not eat or drink for three days, night or day. I and my young women will also fast as you do. Then I will go to the king, though it is against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설교

에스더의 선언,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담대함은 개인적인 강함이나 무모한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왕후라는 위치를 지켜야 할 특권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부르심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바로 그때를 위해 왕궁에 오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에스더 4:14). 우연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에스더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신과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겠다고 합니다 (에스더 4:16). 그녀의 용기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함고, 이에 따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에,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지만, 왕에게 나아갈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 합니다.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을때, 그로 인해 죽게 된다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16). 에스더의 결단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용기는 종종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순종이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에스더의 용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날 더 큰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희생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맡겨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고백에 담긴 정신은 오늘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자리와 기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진정한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데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설교

Esther's declaration, "If I perish, I perish," stands as one of the clearest expressions of courage rooted in faith. Her boldness did not arise from personal strength or reckless determination, but from a growing recognition that her life was placed within God's providential plan. When the decree threatening the destruction of the Jewish people was issued, Mordecai challenged her to see her royal position differently—not as a privilege to protect but as a calling to fulfill. He urged her to consider that perhaps she had come to her royal position precisely for that decisive moment (Esther 4:14). What seemed like coincidence was, in reality, divine placement. This realization reshaped Esther's response. Rather than rushing forward in impulsive heroism, she first called for fasting among her people, committing herself and her attendants to do the same (Esther 4:16). Her courage was therefore not self-generated; it was born out of dependence on God. In seeking the Lord first, she acknowledged that the outcome was ultimately in God's hands. Only after this posture of surrender did she resolve to approach the king, even though doing so without being summoned could result in her execution. It was then that she uttered the remarkable words of faith: she would go to the king, and if it cost her life, so be it (Esther 4:16). Esther's decision reveals a profound spiritual principle: courage before God often requires releasing control over one's own life. She was willing to obey even when obedience carried the possibility of loss. This kind of courage flows from trust in God's sovereign purposes rather than confidence in favorable circumstances. Her willingness to risk everything for the sake of her people anticipates a deeper pattern that runs throughout Scripture—the call to surrender one's life for the purposes of God. Ultimately, Esther's courage points forward to the greater sacrifice found in Christ. Where Esther risked her life to save her people, Jesus willingly gave His life to redeem humanity. His sacrifice becomes the foundation for Christian boldness. Because Christ has already given Himself for us, believers are freed from the fear of loss that so often restrains obedience. Our lives no longer belong solely to ourselves; they are entrusted to the purposes of God. Therefore, the spirit behind Esther's words remains a defining mark of a Christ-centered life. To follow God faithfully means recognizing that our positions, opportunities, and moments in history are not accidental but providential. When that truth takes root in the heart, courage begins to rise—not the courage of self-confidence, but the courage that comes from surrender. And in that surrender, a believer can step forward in faith, entrusting everything to God, ready to say with conviction: "if I perish, I perish."

나눔 질문

1.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금 이 학교, 이 직장, 이 동네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Just as Esther's position as queen was "for such a time as this," why do you think God placed our family in this school, this workplace, or this neighborhood right now? Who is someone in your daily life that you can help or serve?
2.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요즘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쓰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무엇인가요?  
Before making a big decision, Esther sought God first through fasting and prayer. Is there a worry or problem you are trying to solve on your own? What is one thing we can surrender to God together in prayer today?
3.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친구나 가족을 위해 용기 내어 실천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The phrase "If I perish, I perish" means letting go of our own comfort to follow God's will. This week, what is one brave action you can take for a friend or family member, even if it requires a small sacrifice from you?

마침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 참된 용기는 오직 주님께 맡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for teaching us through Esther's resolve that true courage comes from surrendering to You. Just as Esther saw her life through the lens of Your providence, help our family to seek Your will in everything we do. Grant us the heart to pray and depend on You rather than our own strength. Remind us of the sacrifice of Jesus, who gave His life to save us, so that we may live with boldness and without fear. May our family be a channel of Your grace to those around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 제목

1. 우리 가족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임을 믿으며, '이 때를 위함'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May our family believe that where we stand and everyone we meet are not by chance but by God's holy providence, and live with the sense of calling that it is "for such a time as this."
2. 눈앞의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에스더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용기를 주시고, 결과까지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Instead of relying on our circumstances or abilities, grant us the courage to kneel before God in prayer like Esther, and help us fully entrust the outcome to our sovereign Lord.
3.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처럼, 나의 유익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가정이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Like the declaration "If I perish, I perish," help us lay down our own gain and comfort to obey God's will, so that our family may be a channel of blessing that saves the world and our neighbors.